

# 트럼프 “철강 완제품 25% 관세”…산업계 촉각

### 철강 등 합량 15% 넘으면 25% 관세 적용 가전제품 직격 가능성…‘통상 변수’ 부상 정부 “품목별 영향 면밀히 점검” 대응 강화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가 한국 제조업 전반에 파장을 일으키는 가운데 광주지역 산업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이라는 지역 핵심 산업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지역 산업 구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합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합량 비중을 따라 ‘50%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포고령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합량이 제품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는 25% 관세가 일괄 적용되며, 금속 합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이 품목 관세가 아예 면제된다.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미국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기존 ‘원자재 기준’이 아닌 ‘완제품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금속 원가가 아닌 완제품 전체 가격이 최대 25% 수준의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기업들의 실질 부담은 오히려 커지는 구조다.

이 같은 변화는 광주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광주는 기아 광주공장을 중심으로 한 완성차 생산 거점이자 다수의 부품 협력사가 밀집한 지역이다.

동시에 삼성전자가 생산한 차량 및 협력사가 구축되어, 완제품과 부품 산업이 동시에 얽힌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자동차 산업은 관세 영향이 ‘직접적 충격’보다는 ‘간접적 변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미국의 별도 품목 관세 체계가 적용되며 약 15% 수준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철강·알루미늄 기반 완제품에 대한 25% 관세 확대 조치의 직접 적용 대상에서는 한 발 비껴나 있다.

기준(2025년 6월 이후)	변경*
철강·알루미늄·구리 합량이 전체 중량의 15% 초과 제품	합량 비중 대비 최대 50% 관세 적용 (세탁기 등은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를 적용)
철강·알루미늄·구리 합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하인 제품	완제품 가격의 25% 관세 일괄 적용
철강·알루미늄·구리 합량이 전체 중량의 15% 이하인 제품	관세 면제
해외에서 제조했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량 15% 초과 제품	관세 면제
특정 금속 비중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	관세 면제 (예외 규정 등 산정기준 없음)
	10% 관세
	15% 관세 (2027년까지)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완성차 업계는 이를 단순한 ‘예외’로 보지 않고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북미 시장 대응을 위해 현지 생산 확대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 내 공장 증설과 생산라인 조정을 통해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현지 판매 물량을 현지에서 생산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관세 부담을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생산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광주처럼 완성차 공장과 협력업체가 함께 형성된 지역에서는 완성차의 해외 생산 확대가 곧

지역 부품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 자체보다 ‘생산기지 이동’이 더 큰 리스크로 작용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가전 산업은 보다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은 철강 비중이 높아 이번 관세 정책의 핵심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완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 적용 시, 수출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광주에 위치한 삼성전자 사업장은 냉장고 생산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관세 변화의 영향권에 직접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냉장고는 제품 특성상 철강 사용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가전 품목으로, 완제품 기준 관세가 적용될 경우 가격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가전 협력업체들은 이러한 변화에 특히 취약하다. 지역 내에는 냉장고 생산과 연계된 금속

가공, 부품 조립, 전자 모듈 공급 업체들이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산업계에서는 향후 생산구조 재편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완성품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거나 현지 조달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국내 제조 기반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는 “아직 조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관세 부담이 커지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의 제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 시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대미 수출 기업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품목별 영향을 점검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외대 관계자는 지난 3일 “정부는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에 신속하게 안내하고 영향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외대는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수출 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품목별 영향 분석을 병행할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국가기술자격’ 문턱 낮춘다 고용부, 경력 9년→최대 7년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년층의 취업 경로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취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1차 회의를 열고 청년 취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이날 회의는 “최근 청년층 취업이 어려운 실정에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을 통한 청년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자격의 응시요건이 최대 2~4년 단축되고, 학력·경력 없이도 실력 중심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박운영 KT 대표가 지난 3일 전남과 전북의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그룹사가 위치한 전남 광주 KT 신인타워, KT 광주타워를 방문했다.

## 박운영 KT 대표, 첫 지역 행보로 광주서 현장 경영

### ‘인공지능전환 플랫폼 컴퍼니’ 발전에 핵심 역할 당부

박운영 KT 대표가 취임 이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광주를 찾아 조지 안경과 현장 중심 경영을 본격화했다.

KT는 지난 3일 박운영 대표가 서부네트워크운용본부와 서부법인고객본부, KTcs 등 그룹사가 위치한 전남 광주 KT 신인타워, KT 광주타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박 대표가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핵심 인프라와 기업 고객 사업, 그룹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앞서 박 대표는 취임사를 통해 KT의 성장과 사업 정체성에 대해 ‘단단한 본질’을 기반으로 ‘확실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에게 “KT를 국가 기간통신사업자이자 인공지

능(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공지능전환(AI) 플랫폼 컴퍼니’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 네트워크 인프라와 영업 일선시 변화의 중심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운영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첫 행보로 경기도 과천의 KT 네트워크·보안 관제센터를 방문해 안전을 점검한 데 이어, 곧바로 전남·전북 지역 본부를 찾는 등 현장 맞춤형 경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 전남정보문화진흥원 “AI·디지털 전문가 양성”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지역 AI·디지털 교육의 미래를 이끌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26년 전남도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문강사 양성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시행하고 전남도와 나주시, 전남도교육청이 지원하는 소프트

웨어(SW) 미래채용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대상자는 전남도에 거주하는 고졸 이상 학력자 가운데 AI·SW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이다.

대학(원)생, 미취업자, 경력단절 여성, 예비창업자 등 AI·SW교육에 관심 있는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번 교육은 컴퓨팅 사고력, 프로그래밍 기초, 데이터과학, AI 실습 등 다양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오는 6월부터 7월까지 총 160시간동안 운영된다.

진흥원은 이를 통해 교육생들이 AI·SW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강의 실무 역량과 수업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출 수 있을 것 기대한다.

교육 수료 후에는 진흥원의 별도 위촉 절차를 통해 AI·SW 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 내 이동센터, 특수학교, 도서벽지 및 농어촌 작은 학교 등에서 전남 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윤용성 기자 y0140@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으로 ‘뉴 스마트병원’ 시대 연다

### NEW SMART HOSPITAL 미래의료의 표준을 제시하는 새병원 건립

전남대학교병원은  
융복합 디지털 의료시스템을 갖춘  
세계 최고의 의료거점으로 성장할  
새병원 건립을 시작합니다.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사업'(사업기간 2025~2034년)  
2030년 통관 준공 및 개원 예정 / 2034년 서안 준공 및 개원 예정